

리모트미팅은 TV만큼 쉽고 강력한 100% 클라우드 웹브라우저 화상회의입니다. 알서포트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WebRTC 표준기술을 튜닝, 독자적인 미디어서버 AMS를 설계하고 특허받은 LOUNG UX에 강력한 협업기능까지 갖춘 완전히 새로운 화상회의입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어디에서나 다양한 기능으로 손쉽게 안전하게 화상회의를 즐기세요.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주는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RemoteWorks

Joomyung Lee

Team Manager | PR Marketing Team | Global Marketing Divison

RSUPPORT Co., Ltd. | www.rsupport.com | joomyung@rsupport.com.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화상통화를 어색해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도 한참이 지난 꽤 최근에서야 원활한 화상통화가 됐다고 하면 어색할 정도로 급속히 대중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화상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꽤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4년 세계 박람회에 화상회의가 첫 등장 이후, 1970년 AT&T가 상용화한 이래 2000년대 글로벌 IT기업들이 전통적인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글로벌 Market Share TOP 1~2위 기업이 전체 시장의 60%가량¹을 점유 중)

하지만, 이같이 화상회의 시장의 글로벌 1, 2위 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세계 점유율 1~2위를 물어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대중적인 기업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화상회의' 사용자 또한 대중적이지 않고 한정된 소수만 사용하던 IT솔루션이었습니다. 흔히,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회의실에 커다랗게 비싸보이는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로 한껏 뿔내고 있는 화상회의솔루션을 본적은 많지만 사용해본 사람은 적은 것 처럼 말이지요.

이런 화상회의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되고, 스마트폰 화상통화처럼 흔히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에 하나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 화상회의가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원인'과 '현황', 그리고 '전망'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장을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화상회의가 주목받는 원인

최근 몇 년 전부터 '화상회의'가 기업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로 크게 1) 사회적 2) 경제적 3) 기술적 원인이 있으며, 각 항목간 개별적 동기가 아닌 서로 유기적 관계안에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의 단편을 볼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원인(Social)

첫째, 글로벌화(Globalization)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도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진출을 꾀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은 창업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원격SW기업 '알서포트'는 국내 매출을 해외 매출이 추월한 지 몇 년²이나 되었고 간편파일전송으로 유명한 이스트롭의 '샌드애니웨어' 또한 해외 유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거리 협업(Collaboration)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벤더사와 바이어의 거래 관계뿐 아니라, 회사내에서도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의 경우 연구소는 국내에 있지만, 디자인센터나 테스트센터는 유럽, 북미 등지에 흩어져 각 분야의 담당자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¹ Telepresence (Videoconferencing) Market by Component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 System Type (immersive Telepresence, Personal Telepresence, Holographic Telepresence, and Robotic Telepresence), Industry,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2(July 2016, MarketsandMarkets)

² 알서포트의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2014년 50%를 넘어, 2017년 기준 56.1%의 해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알서포트 홈페이지)

더욱 쉽게 단적인 예로,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을 보면 전국 각지로 흩어진 기관간에 상시 협업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셋째, 근무환경이 빠르게 변화(Innovation)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의 이름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이 발달했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기에 진행되는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심각해 지고 있는 노동인구의 변화에 최저시급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시간 변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급변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생산성 향상으로 근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인 '재택·원격근무' 정부지원사업³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체 수백 억대의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원인(Economic)

앞선 사회적 원인처럼 경제적인 동기에서도 크게 2가지의 세분화된 트리거(Trigger)가 화상회의의 주목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첫째, 고정비 절감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기업이든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최상의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과거 80~90년대 전세계적인 고성장 시대에는 고정비를 몇배 이상 상회하는 수입으로 고정비 절감에 대해 관대하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2007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를 거치며, 기업은 인건비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비용 절감에 집중해 이제는 기업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경영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셀프서비스나 날리지 베이스를 통해 낭비되는 시간과 인적 자원을 최소화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⁴

둘째, 제품의 서비스화입니다.

직전의 '고정비 감소'와 뒤에 기술할 '기술적 요인', 그리고 '근무 환경 변화'가 복합 적용된 결과로 직접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아닌, 필요에 따라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임대형을 채택하였으며 IT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Vendor)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서비스 제품⁵으로 빠르게 체질을 개선시켰습니다.

위에 인용된 알서포트의 경우, 한국에서는 서비스 제품 매출과 구축 제품 매출이 각기 50%를 차지하며 일본에서는 서비스 제품으로 90%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기술적 원인(Technology)

³ 일·생활 균형 공식 블로그 www.worklife.kr(고용노동부 고용문화정책개선과)

⁴ 기업SW는 소비자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CIO Korea, 2017. 2. 3)

⁵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개인이나 기업이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 응용프로그램을 임대, 관리해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높은 구입비용 대신 일정 서비스 요금만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 관리인력 등이 필요 없다.(한경경제용어사전)

사회적, 경제적 원인은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 눈치채기 쉽지 않지만, 기술은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아래의 대표적인 3가지 기술적 원인이 부가되어 변화에 가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클라우드(Cloud)의 확산입니다.

기업에 필수적인 IT시스템을 직접 구매해 설치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확장하거나 축소가 용이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가 기폭제가 되어 설치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SW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 비용은 절감하고 사용은 편리한 인프라와 IT솔루션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⁶

둘째, 기술 인프라(Technology infrastructure) 고도화입니다.

무선 통신의 4세대 기술인 LTE의 급속한 확산과 전국 곳곳으로 기가비트 네트워크가 도달하면서 고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하드웨어 또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대용량 저장매체, 초고속 프로세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5G 통신은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⁷

셋째,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확대입니다.

어제까지의 웹은 1차원의 텍스트 기반 HyperText Transfer Protocol에서 시작해 2차원적 사진으로 커뮤니케이션했으나 오늘은 3차원의 영상 미디어가 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⁸

이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변화로 기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실시간 전송을 위해 다양한 압축 방식이 등장하면서 보다 고화질이지만 저용량을 구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화상회의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닌 IT솔루션으로 새삼스럽게 최근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란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를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압축해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 기업 비즈니스의 세계화가 가속되는 와중에 세분화되어 가는 전문 영역간의 협업이 긴밀해지면서 변화하는 근무환경을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도구가 필요해지자 테크놀로지의 힘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으로 협업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 시장 현황

오랜 역사만큼 화상회의 시장은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최근까지도 많은 시장조사기관에서 다양한 리포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워낙 작은 국내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글로벌 시장(Worldwide Market Share)

가트너(Gartner), IDC(International Data Center),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 등과 같은 주요 시장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별로 다양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Video Conferencing,

⁶ 클라우드,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블로터, 2015. 7. 12)

⁷ KT, 평창 성과 이어 내년 3월 5G상용화...특허도 100여건 출원(이데일리, 2018. 3. 22)

⁸ 네이버 '다음 대신 유튜브...' '글로벌 영상' Z세대 검색 패러다임 대변혁(매경이코노미, 2018. 3. 19)

Telepresence, Web Conferencing, Meeting solutions, VaaS(Video as a Service) 등 제각기 다른 기준과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다양한 시장 조사 기관의 최근 3년 이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비디오 화상회의 시장의 둔화

화상회의 시장조사 카테고리는 크게 Video Conferencing > Telepresence > VaaS로 볼 수 있습니다.

Video Conferencing⁹ 시장의 경우 2017 ~ 2025년간 8.6%의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2025년 9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Telepresence¹⁰ 시장은 2016 ~ 2022년간 19.6%의 연평균 성장률로 2022년 2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등장하기 시작한 클라우드 기반의 VaaS¹¹는 2016 ~ 2021년간 32.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Video Conferencing 카테고리는 화상회의 전체를 나타내는 시장으로써 한화 기준 약 12조에 달하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H/W, S/W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Telepresence 시장과 클라우드로 구성된 VaaS 시장의 경우 클라우드 화상회의가 전통적인 H/W 화상회의의 성장률을 압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각 시장 조사기관 별로 조사 및 평가 방법이 상이해 1:1로 매칭한 자료를 찾기는 힘들으나, 여러 기관 리포트를 교차 분석해보면, Telepresence 시장 대비 클라우드 화상회의가 2016년 43.4% 비율로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72.2% 비율을 차지합니다. 즉, 2016 ~ 2021년 사이 Telepresence 시장 대비 클라우드 화상회의의 시장이 66.4%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다크호스 클라우드 화상회의의 급부상

최근 시장 점유율과 예측치가 여러 조사기관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Meeting Solutions, VaaS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트너의 Meeting Solutions Magic Quadrants¹²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Cisco, Polycom 등의 전통적인 화상회의 강자 들도 보이지만 Microsoft, Zoom이 Leaders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그 외에도 Challengers, Visionaries, Niche Players 그룹에 생소한 서비스명부터 제조업이나 화상회의와 무관해 보이는 기업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통의 강자부터 신진 세력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비대해지고 느려진 전통 강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Video Conferencing 시장에서 H/W 장비가 간신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몇년 내에 클라우드 화상회의가 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⁹ Global Video Conferencing Market Report 2017: Shift Towards Cloud-Based Video Conferencing Solutions - Research and Markets(2017. 9. 21)

¹⁰ Telepresence (Videoconferencing) Market by Component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 System Type (immersive Telepresence, Personal Telepresence, Holographic Telepresence, and Robotic Telepresence), Industry,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2

¹¹ Video-as-a-Service Market by Platform (Application management, Devices Management, Network Management), by Services (Broadcasting Video Communication, Video Conferencing, Video Content Management, Real-Time Video Monitoring) - Global Forecast to 2021

¹² Magic Quadrant for Meeting Solutions(Gartner, 2017. 9. 18)



(단위 : Million USD)

Category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AGR
VaaS ¹³	390.3	516.8	684.2	905.9	1,199.4	1,588.0	-	32.4%
Telepresence ¹⁴	898.6	1,074.7	1,285.4	1,537.3	1,838.6	2,199.0	2,630.0	19.6%
Video Conferencing ¹⁵	-	4,980.0	5,408.3	5,873.4	6,378.5	6,927.1	7,522.8	8.6%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의 자료를 종합한 화상회의의 관련 글로벌 시장 예측(Forecast)>

2) 국내 시장(Domestic Market Share)

국내 시장은 명확한 화상회의의 시장 규모 조사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시장 규모 대비 미미한 점유율을 갖는 국내 시장의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전체 시장 규모를 대비해 유추해 시장 규모를 측정해 보면, 2018년 국내 IT(정보기술) 시장 규모는 약 81조 4000억원에 이른다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세계 시장 대비 한국의 시장 규모는 약 2%정도인 것으로 예측됩니다.¹⁶

이를 글로벌 화상회의의 시장에 대입해 보면, 2018년 VaaS는 164억원, Telepresence는 308억원, Video Conferencing은 1298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¹³ Video-as-a-Service Market by Platform (Application management, Devices Management, Network Management), by Services (Broadcasting Video Communication, Video Conferencing, Video Content Management, Real-Time Video Monitoring) - Global Forecast to 2021

¹⁴ Telepresence (Videoconferencing) Market by Component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 System Type (immersive Telepresence, Personal Telepresence, Holographic Telepresence, and Robotic Telepresence), Industry, and Geography - Global Forecast to 2022

¹⁵ Global Video Conferencing Market Size, Market Share, Application Analysis, Regional Outlook, Growth Trends, Key Players, Competitive Strategies and Forecasts, 2017 - 2025

¹⁶ 국내 IT시장 규모, 전년 대비 3.1%증가 전망 "81조 4000억원 이를 것"(전자신문, 2017. 1. 16)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해외에 비해 뒤늦게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에 주목하고 태동하는 국내 화상회의 시장 상황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가속화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보다 극적인 성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 억원 / 환율 1USD = 1200원)

Market	2017	2018(Forecast)	Growth Rate
Domestic	789,382	813,950	3.1%
Worldwide	40,895,813	42,000,000	2.7%
Domestic Share	1.93%	1.94%	-

<가트너가 조사한 국내 IT 시장 규모(2017. 1. 16)>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의 전망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가 주목 받고 있는 원인과 시장 현황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왜 주목받기 시작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았다면, 남은 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예상이나 전망 또한 기설명한 '원인'처럼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전망을 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전망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1) 기술적 전망 :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¹⁷

웹에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실시간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로써 W3C에 의해 제정된 차세대 표준입니다. 2010년 구글이 첫 제안한 이후 2017년 V1.0 표준이 공개되었다.

전통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의 경우 제조사별로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WebRTC를 적용한 서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정상 IT기업인 카카오, 네이버에서도 WebRTC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WebRTC를 이용한 국내 웹 화상회의로는 2017년 첫 상용 웹 화상회의 서비스로 기록된 리모트미팅(www.remote meeting.com)¹⁸이 대표적입니다.

구글이 최초 제안해 시작된 WebRTC는 크롬 웹 브라우저를 비롯, 파이어폭스, 오페라와 함께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사파리, 엣지 브라우저까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확대되어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영향력만큼 개발자와 투자 역시 활성화 되고 있는데, 2017년 표준이 완성되면서 확산일로에 있어, 향후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에 빠질 수 없는 기술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어 WebRTC를 이용한 웹 화상회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사회적 전망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¹⁷ [기고]WebRTC 6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1) ~ (3) (컴퓨터월드, 손성영 기고, 2017. 9 ~ 11)

¹⁸ 2014년 개발에 착수해 최적화된 WebRTC 튜닝과 독자적인 미디어서버, 특히 받은 UX(사용자경험)로 2017년 유료화 출시를 했다.

사회적 요인은 다각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본 글에서는 '근무'에 대한 영역으로 한정 지어 전망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원인'에서 조망한 것처럼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고령화, 출산인구감소, 최저시급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굵직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IT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최저시급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¹⁹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고도성장이 멈추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에 당면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고정비 절감으로 대응하였지만, 엔고가 지속되고 전세계적인 저성장 경제 구조로 들어가면서 구조조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랜 장기 침체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 국민들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국가와 기업에게는 경제가 순환되지 않고 손실이 쌓이는 구조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침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혁신하지 않고 간편한 방법인 비용 절감만으로 버티려 했기 때문에 기업의 체질도 악화되고 악순환의 반복에 빠지는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²⁰

최근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국민들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사업에 힘입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천문학적인 해외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환이 든든한 서포트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²¹

우리나라 또한 이웃 일본과 유사한 인구 구조 및 경제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생산인구 감소 현상은 일본 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반면교사삼아 단기 처방으로 국민이 생활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고자 최저 시급 인상으로 소비 여력을 마련해 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업은 단순하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줄어든 시간에도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민관이 함께 지속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으로써 그렇다면 기업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정비도 줄이면서 생산성을 유지한다면 또는 낭비되는 시간을 줄 생산성을 높인다면 어떨까?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와중에 '원격근무'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써는 과도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노동자로서는 이동간에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절감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¹⁹ 1. 화상회의가 주목받는 원인 중 1) 경제적 원인 > 셋째, 고정비 감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²⁰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이와우, 이근태 외 LG경제연구원, 2016년)

²¹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동아시아, 모타니 고스케, 2016년)

원격근무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수시로 이루어 지는 회의와 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의 높은 품질과 편의성으로 오프라인에서 미팅하듯 온라인에서도 미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적인 화상회의가 기업내 소수만이 사용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이었다면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는 확장/축소가 유연한 클라우드의 특성과 합리적인 경제성으로 전사 임직원 도입을 통해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²²

3) 경제적 전망 : 정부 지원의 확대

사회적 전망에서 꾸준히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가 참여해 혁신을 이어가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뜻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모토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5가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기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 없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비공식 야근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 '원격제어관리' 등 기존 시스템 변경없이 즉시 도입 가능한 '원격근무' 솔루션들이 주목받으면서 '원격근무'제도 신청 기업이 크게 늘어나, 원격근무 신청 기업에게는 최대 솔루션 도입비용의 50%, 2,000만원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²³

이렇게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가 필수적인 '원격근무' 환경 구축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화상회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게도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 경제, 기술이 발전 및 성숙되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커뮤니케이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저렴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가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웹 화상회의 리모트미팅

초기도입비 0원으로 누구나 손쉽게 웹브라우저만으로 할 수 있는 화상회의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서 리모트미팅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기술한 내용처럼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원격근무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무실에 모여 업무를 하는 주된 이유는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다 양질의 산출물을 만들고 빠른 의사 결정으로 비즈니스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도입 비용이 비싸고 사용이 불편하다면 과거 전통적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다를게 없을 겁니다.

²² "4차 산업 혁명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 변화 불가피"(데이터넷, 서형수, 2017. 12. 1)

²³ 재택근무 도입 100개사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디지털타임스, 2018. 1. 28)

최근 다양한 웹브라우저 기반 화상회의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에서는 최초의 WebRTC 화상회의 상용서비스로 리모트미팅이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 RemoteMeeting 특징

웹 화상회의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설명이나 도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 UI/UX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화상회의가 끊김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D급 고화질·고음질의 안정적 화상회의

끊김없는 회의 진행을 위해 자동으로 사용자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감지하여 화질을 조정하고 깨끗한 오디오 품질을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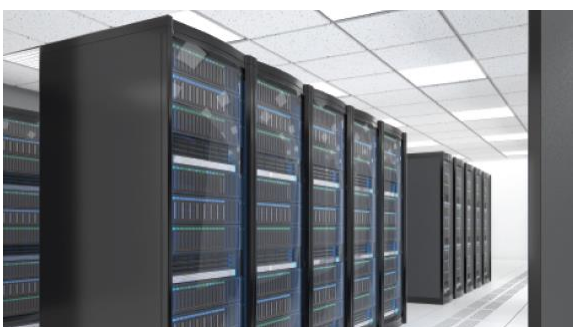
독자 기술인 AMS(Advanced Media Server)의 데이터 통합 전송으로 네트워크 부담을 최대 30% 줄여, 더욱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회의를 제공합니다.



No Installation, 특허받은 LOUNGE UX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없이 클릭 2번만으로 회의실이 만들어 집니다.

오프라인 회의습관 그대로, 회의실을 선택해 입장하 듯 LOUNGE에서 원하는 회의실을 선택해 입장하고 접속코드, 직접 URL, 이메일 등으로 로그인 필요없는 비회원을 간편하게 초대합니다.



강력한 보안

리모트미팅은 엔터프라이즈급의 최고 수준 보안을 제공합니다. AWS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며 네트워크 통신 암호화, 전송 데이터 암호화는 물론, IP주소를 이용한 접근 보안에 사용자 권한 차등(WhiteList) 적용까지, 모든 사용자 이벤트 로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자 권한의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회의 중 사용했던 모든 공유 문서들은 회의 종료 즉시 자동으로 삭제되어 문서 유출을 방지합니다.

이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만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와 정부 모두가 함께 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Keep the Communication

리모트미팅을 도입한 기업의 직원은 '변화가 필요없는 혁신'에 더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미팅으로 원격근무 중 업무 소통의 즉시성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세요.

For more information about **RemoteMeeting** & **RemoteWorks**, please visit
<https://www.remotemeeting.com>
<https://works.rsupport.com>

Korea

0554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방이동 44-5) 에스타워 10~15층
전화: +82-70-7011-3900
팩스: +82-2-479-4429
기술문의: support.kr@rsupport.com
구매문의: sales.kr@rsupport.com

Japan

105-0001 東京都港区虎ノ門1-2-20
第3虎の門電気ビル
TEL: +81-3-3539-5761
FAX: +81-3-3539-5762
Tech: support.jp@rsupport.com
Sale : sales.jp@rsupport.com

China

北京市朝阳区阜通东大街6号方恒国际A座27
08
技术咨询: support.cn@rsupport.com
销售咨询: sales.cn@rsupport.com



© 2018 RSUPPORT Co., Ltd.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RSUPPORT and the RSUPPORT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RSUPPORT Co., Ltd. The information herein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represents the current view of RSUPPORT Co., Ltd. as of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Because RSUPPORT must respond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be a commitment on the part of RSUPPORT, and RSUPPORT cannot guarantee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provided after the date of this presentation. RSUPPORT MAKES NO WARRANTIES,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AS TO THE INFORMATION IN THIS PRESENTATION.